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동!
제14대 총여학생회

cool-energy@hanmail.net
전화 2123-3645(구내 3645)

후원 : 여학생처, 학생상담소

여학우

취업 대란

40장의 이력서와
900점의 토익 점수...
4.0의 학점도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WE
WILL
SURVIVE !**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동!

제 14대 총여학생회



행나일정표

날짜	행사	장소/시간
5. 6 월	<구조물 설치> -대학의 여학우의 모습과 사회인으로의 여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구조물.	민주광장에서
	<적성검사 실시> -여학생처의 지원을 받아 취업대행사가 있는 한 주 내내 진행됩니다.	학생회관2층
	<강연회> 강사 : 변재란 (서울 여성 영화제 프로그래머, 영화 평론가) 평등 부부로 살아가는 [반쪽이네 가족일기] [반쪽이 부부의 작은 세상]의 주인공^^ -문화 영역에서 여성의 자리 잡기 & 결혼과 가족의 울타리에서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위당관인회 B09 늦은 7시
5. 7 화	<여성노동에 관한 영화상영 & 감독과의 대화>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꾼다"와 "재희 이야기" (서울 여성 영화제 상영작) 두 작품의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위당관인회 B09 늦은 6시
5. 8 수	<1부-토크쇼> 여선배 4명을 초대해, 그들이 사회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내 면서 현실을 알아가고,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가볍게 웃으며 견어차 주는 법을 배우자~~~	위당관인회 B09 늦은 7시
	<2부-선배와 만나는 시간> 토크쇼의 여선배 4명은 전공이나 일하는 분야별로 다양한 사람을 선택해 서, 그 선배들과 함께 소모임을 구성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노후우를 진수 받자 그리고 얘기하고 나눔으로써 취업대행을 즐겁게 해어나갈 수 있는 노후우를 배우자~~~	

취업에 대한 선배들의 노후우 요약 정리, 자료집도 기대하세요!!

여학우

취업 대란

**WE
WILL
SURVIVE!**



5월 6일 (월)

<강연회> 변재란씨-반쪽이네,
한 순천향대 교수

주제: 나는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잡았는가, 좋은
직업과 자라온 이야기에 살아남기 위해 갖춰
야 할 마인드는 무엇인가.

연문관 | B09 늦은 7시

여성노동현실을 반영한 구조물설치(민주광장)
1주일 내내 적성검사 실시 (적면 1층)



5월 7일 (화)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꾼다> 와
<재희 이야기> 두 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연문관 | B09 늦은 6시

<재희 이야기> - 장희선 연출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꾼다> - 김미혜 연출



5월 8일 (수)

<선배들과의 만남>

공대생에서 사회과학대 생명과학, 인문대 출신의
다양한 선배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CEO로서, 홍보전문가로서, 문화전문가로서,
학사과정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겪는 다양한
이해들을 같이 나누고, 듣고, 알리고자 합니다.
연문관 | B09 늦은 7시

1부: 선배들의 토크쇼
2부: 선배와 만나는 시간



여는 글

4

행사일정 및 소개

6

4학년 여학우의 일기

10

취업정보 - 취업, 정보의 바다로!

14

여자

선배들의 말말말

16

이럴땐 이렇게 - 요리보고 조리본 여성과 일!

26

여는함

세상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려옵니다. 4학년 여대생에게 남아있는 것은 계절학기까지 들어가며 관리한 4.0의 학점과 950점의 TOEIC점수, 여러 자격증, 그리고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미래의 모습입니다. 어떤 선배는 40여 장이나 되는 이력서를 뿌렸는데도 연락 오는 곳이 없다고 하고, 어느 여선배는 남자들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끼리 밀어주고 쫓겨주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복사더미밖에 없는 회사, 하루에도 100번씩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여대생의 취업대란, 한국여성민우회가 최근 기업채용공고를 모니터한 결과, 전체 1,394건 중 43%인 599건이 남성만 모집하거나 성별로 직종과 직급을 분리하고 있었고, 연령 제한과 기혼자 제한을 두는 차별적 채용공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울감과 불안에 점차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전공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듣고 싶고 말하고 싶어도 함께 얘기할 선배가 없는 현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할 자리

We Will Survive!!

를 만들고 싶어서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미 내 나이를 거처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안에서 우리가 겪어야만 할 냉정함,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요구되는 불평등과 그에 대한 해결을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여선배뿐 아니라, 앞에 닥친 일들에 대해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해결해나가고 있는 평범한 여선배들의 얘기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스승이자,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지레 포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너무나 순진하게 '나는 잘될거야'라며 미래를 향해 꿈의 날개를 펴는 것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희망의 목소리로 우리의 문제점들을 나누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취업대란-WE WILL SURVIVE!>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부딪칠 많은 문제들에 대한 예방주사가 되어, 여학생들이 든든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나이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좋은 학점과 TOEIC점수만으로는 세상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들로부터 듣는 그녀들의 삶 이야기, 그 많은 문제와 해결의 이야기, 그리고 경험과 생각을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훌륭한 준비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스승과 동료가 되어주며 같이 준비하는 미래는 분명히 단단하고 밝을 것입니다. 그리고...우리는 이 취업대란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We Will Survive!"

행사 일정 및 소개

5/6(월)~5/10(금)

♀ 여성노동의 현실을 보여주는 구조물 설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자~

장소: 민주광장

♀ 1주일 내내 적성검사 실시

5월 6일 월요일부터 5월 10일 금요일까지

시간: 이른 10시 ~ 늦은 4시 까지

장소: 학생회관 2층

5/6(월) 늦은 7시

♀ 강연회- 변재란씨

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영화평론가,
"반쪽이네 가족일기"의 주인공-평등한 부부로 살아가기,
현 순천향대 교수

나는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잡았는가.
좋은 학점과 자격증 이외에 살아남기 위해 갖춰야할 마인드는 무엇인가.
우리의 20대, 30대의 모습을 그려보자~

장소: 인 II B09



5/7(화) 늦은 6시

♀ 여성노동에 관한 영화상영

'재희 이야기' &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꾼다'

'재희 이야기' - 장희선 연출

직장내 성희롱을 다룬 영화. "당신에겐 일상이지만 나에겐 고통이야!" 라는 카피 아래, 직장내 성희롱에 관해서 가해자에게는 사소한 행위에 불과하지만, 피해자는 피사를 결심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과 폭행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재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꾼다' - 김미례 연출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에서 제작한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이 땅에서 비정규직으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여성으로서 어떻게 현실을 꾸려가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장소: 인 II B09



5/7(화) 오후 7시

우 선배와 만나는 시간 - "나에게 해주고픈 10가지 이야기"

1부-토크쇼

여선배 4명을 초대해, 그들이 사회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면서, 불명동을 알아가고, 가볍게 웃으며 걸어차 주는 법을 배우자~~

2부-선배와 만나는 시간

토크쇼의 여선배 4명은 전공이나 일하는 분야별로 다양한 분들입니다. 그 선배들과 함께 소모임을 구성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노하우를 얘기하고 나눔으로써 취업대란을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읍시다~

장소: 인 II B09



설문조사

1

여학우들이 생각하는 취업시 중요한 요소로는



이라고 답했어요.

특히 어학실력에 있어서는 토를 250이상(CBT), 600(PBT) 이상, 토익 950 이상을 안정권으로 꼽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영어점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구요, 또 영어점수에 관계없이 영를 모국어처럼 구사해야하고, 중국어나 불어를 제2외국어로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 조사대상 : 연세의 여학우 146명
- 조사기간 : 4/8(월) ~ 4/12(일)

... How do I live?

언젠가부터 친구나 선배들을 만나면 하게 되는 이야기가 정해져 버렸다.

"바로 졸업할꺼야? 졸업하면 그냥 취직하게?", "대학원 갈려구?? 왜 공부 더 하게?"

"예구... 모르겠어... 지금까지 뭘했는지....", "토익은 쳤어? 몇 점 나왔는 데???"

"고시하게?? 너무 늦은 거 아냐???"

앞으로의 진로 문제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서로에게 할 말들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고, 루념만 늘어갈 뿐인데... 우리의 대화는 안타깝게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2점 대 학점을 가진 남자 선배는 취직했는데, 4점 대를 육박하는 학점을 받고도 취직하지 못했다는 여자 선배의 이야기를 듣거나, 직장 내에서의 남녀차별 문제가 크다는 소리라도 듣게 되면 그야말로 그날 하루의 기분은 "썰"이 되고 만다. 졸업 후의 상황이 그다지 밝게 만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아니 졸업이 바로 코앞의 현실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난 그다지 실패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 주는 줄 알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자만이 지금은 내 눈앞에서 좌절의 늪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내게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까지 난



뭘 했나?", "난 뭘 하고 싶

은 거지?" 하는 물음들이다.

대답은 한결같다. 난 지금까지 주어진 대로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고, 내가 뭘 하고 싶어하

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마다 얼마나 좌절하게 되고, 내 자신이 한심한 인간처럼 느껴지

는지.. 그렇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에,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 분노하는 거 말고는 아무 것도 없으면서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답답하다. 남들보다 몇 걸음은 뒤쳐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과연 찾아낼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어제는 중간 고사 시험을 하나 치고, 친구와 나란히 걸어내려 오면서 난 학생상담실로, 친구는 취업상담실로 발길을 돌렸었다. 난 적성 검사와 성격 검사의 결과를, 친구는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록 서로 다른 길을 향해 발길을 돌리고 있었던 거였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은 동일했다. 졸업 후의 나의 삶을 결정짓기 위한 것이라는.....

이 글을 쓰면서도 한숨이 나오는 것이 졸업을 앞둔 우리네 여대생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지금 내게 있어 가장 절실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앞의 이 전쟁이 빨리 끝나 남들처럼 나도 비로소 갖가지 색에 취한 꽃들을 바라보며 가벼운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 보는 것이다. 이 작은 소망이 왜 그리 이뤄지기 힘든 것인지....

어쨌거나, 졸업을 앞둔 우리 모두들 항상 "파이팅" 이라고 외쳐주고 싶다.





사(死)학년 취직, 그리고 나의 길

나는 여자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이다. 4학년말고 사(死)학년...

이 사(死)자는 바로 죽을 만큼 힘들다는 여대생들의 취직을 빗대어서 나온 말이다. 여성취업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IMF이후, 힘들어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있어서 취직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고통이 되었고 그러한 취업대란의 상황에서 졸업을 앞둔 4학년 '여학생들'은 더 힘들다. 4년 내내 한눈 팔지 않고 학점 관리해 오고, 영어시험 점수 잘 받아 놓고, 비싼 돈 들여 외국에 어학연수 다녀오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옛 말이다. 좋은 학점과 영어실력, 어학연수는 누구나 해야하고, 하고 있는, 여대생들의 필수 중의 필수가 되었고 제2외국어는 선택이란다. 이러한 최악의 취업난에 성차별까지 몸소 느끼는 여대생은 졸업이 무섭다.

성차별?

굳이 여대생의 주변에 만연하고 있는 고루한 차별의 예를 나열하고 싶지는 않다. 적어도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을 이야기 해 보자. 선배중의 한 명은 석사 학위가 있어야 학사 학위의 남성

과 동등하게 면접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대기업에서는, 학점이나 영어 점수가 월등함에도 여성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조차 통과되기가 힘들단다. 그리고 꼭 따라나오는 한 마디는 "얼굴 예쁘면 그냥 통과래!"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최근 기업채용공고를 모니터한 결과, 전체 1,394건 중 43%인 599건이 남성만 모집하거나 성별로 직종과 직급을 분리하고 있었고, 연령 제한과 결혼자 제한을 두는 차별적 채용공고였다고 한다. 더구나 면접에서도 "남자친구가 있느냐?", "차심부름도 할 수 있느냐?" 등 성 차별적 질문이 주류를 이루는가 하면 서울의 한 여자대학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면접 시 분홍색 원피스를 입어라', '순종적이고 부드러운 여성상을 강조하라'는 등의 우습지 않은 면접기준까지 제시해 물의를 빚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래서 요즘 여대생들 사이에서는 "취직"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4학년을 마친 후 졸업을 하면서, 직장인으로 취직을 하는 여학생들보다는 취업의 대안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여대생들이 "취직" 대신 시집간다는 의미의 "취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이

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결혼중매시장에 전례 없이 심각한 여초 현상-그것도 소위 고급인력이라고 말하는 대학졸업장이 있는 여성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취업 대신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아예 졸업을 보류하는 휴학생들이 크게 늘었다. 현실적으로 여대생의 취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대생들은 개인적으로 취업경쟁에서 낙오했다는 패배감을 느낄 것이고, 여대생 취업을 "복권당첨"으로까지 비유할 정도의 우리나라 노동시장환경의 모순에 대해 분노할 것이며, 남자도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시각에 대해 실망할 것이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문제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렇게 여대생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과 권위적인 사회 환경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과 더불어 병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진로와 그 선택, 그리고 추구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여성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나와 내 주변의 친구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는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고시, 공인 회계사,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연구소에 들

어가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란 남들이 정해 놓은 기준, 그리고 세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고 원하는 일이 그러하다면 소신껏 추진하라. 그러나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지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내가 하길 원하는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나의 주체성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적이고 딱 막힌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 사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처한 여러 가지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현실의 문제를 올바른 눈으로 비판할 줄 알고, 그에 따라 제기되는 화두인 여성취업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여대생이 부딪힐 수 있는 성 차별적 고용관행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여대생 모두 아니 사회 전체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차별적인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과 자신감 또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졸업을 앞둔 여대생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은 듯 싶다.



취업, 정보의 바다로!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점일 거예요. 신문을 뒤적여다가 구인전문지를 사보기도 하고 학교의 취업담당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정보의 홍수인 인터넷 사이트들을 뒤적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수없이 많이 링크되어 있는 취업사이트들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도대체 어느 사이트가 내가 원하는 사이트일까. 하나씩 다 들어가 볼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사이트별로 분야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생산성본부

www.kpc.or.kr

여기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경영' 부문의 재무, 생산, 마케팅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krivet.re.kr

'직업교육훈련DB'라는 곳에 들어가면 자격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격종별로 합격률, 연간 검정 횟수, 담당 기관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직업진로정보망' 아이콘을 누르면 <http://careernet.re.kr>로 연결이 되는데 직업기초능력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JOBINFO

www.donga.com/job/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인광고가 눈에 띕니다. 한 자리에서 이력서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편합니다. 또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보고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별로 없군요.

국제취업정보

www.headhunter.net

국제 취업정보가 있는 곳입니다. 카테고리가 잘 분류되어 있고, 회사별로 일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3백만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다는군요. 메일링 서비스하고 있고요, 자신의 이력을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국제실무훈련협회

www.aipt.org

그야말로 실무훈련협회입니다. 일자리를 찾는다고 보다는 미국에서 인턴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우프

www.woofkorea.com/

다른 나라의 우프 정보까지 링크되어 있고 우프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프가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여성노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취업정보는 아니구요. 취업후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도움이 될만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인력주식회사

www.jobguide.co.kr

주로 SK나 BC CARD 등의 대기업의 구직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구요,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가이드에는 이력서 쓰는 법부터 이런저런 충고들이 올라와 있네요.

여성사비즈

www.sabiz.co.kr

여성 창업에 관한 기초지식들-주로 세금, 기업형태결정, 창업절차들-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구인/구직란도 있고요, 주로 패션이나 화장품 등의 구인/구직이나, 그쪽 분야의 창업정보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취업사이트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프리랜서

www.oasysnet.com/oasys/freelink.html

프리랜서(마케팅 분야)

www.freelancers.com

프리랜서(출판예술분야)

www.inac-global.com

프리랜서(경영컨설팅분야)

www.freelanceonline.com

프리랜서(방송광고분야)

창업관련

www.hisoho.co.kr

P.B.I. 소호정보총망라

www.hisihi.co.kr

하이테크 소호비즈니스

www.dure21.com

SOHO 인맥 만들기

<http://chainnet.co.kr>

체인사업전문사이트

www.kova.or.kr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http://ns.jink.com/sunam>

IP사업 창업 컨설팅

조금 다른 선택의 '어떤' 기록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졸업을 앞두고 고민이 많던 어느날, 친하게 지내던 (나보다 10살쯤 나이가 많은) 선배 언니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그 때, 가벼운 웃음과 한숨이 섞여있었던 선배의 대답은 아주 외외의 것이었다.

"그래도 너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구나. 너는 그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그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해야 하는 것인가요?"

"너는 나보다 그 질문을 일찍 시작했으니, 답도 일찍 찾을거야."

당시의 내 고민은 이런 것이었다. 과연, 전공을 살려 취직을 할 수 있을까? 한다면 어떤 선택 지점들이 있을까? (있거나 할까?) 그 선택에 들어섰을 때 상상할 수 있는 나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막연하게나마 전공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전공을 살리겠다고 마음먹고 취직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내게 펼쳐질 미래란 혹시 이미 결정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상상력이 부족한 탓이었는지, 그 때에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마음을 한번 굳혀버린 후에는 골짜기가 정해진 길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지금이 아니면 선택의 기회라는 것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이런 불안한 생각에 매달려있는 것이 '사실은 내 전공에 만족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심각한 고민도 함께.

그런데, 이렇게 심오한(?) 고민은 스스로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선택을 함으로써 때로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갑자기 풀려 나가기도 한다. 내가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여성주의자들에게서 '페미니스트 웹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고서 스스로가 '함께 하겠다'는 대답을 던졌던 것처럼, 그 친구들과 일상적으로 만나기 힘든 공간에 있었던 탓에 만남이 뜸했던 시간이 꽤나 답답했었던지, 그 결정의 순간은 갑자기 가벼운 날개를 단 것처럼 나를 흥분시켰다. 그 때 내가 느꼈던 기분은, 내 개인의 역사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경험들을 연장해나갈 수 있다는 점과 그 경험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일에 덩벼들어볼 수 있다는 점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당시 내 결정을 들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격려의 말을

해준 사람들도 꽤 많았지만, 어떤 이들은 전공을 아주 재미없어했는가 보더라는 지레짐작을 하거나, 전공을 살리면 그렇게 취직이 힘들냐던가 하는 말들을 했다. (그리고 그런 말은 지금도 심심찮게 듣는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대답은 다음과 같다. "나는 몇 년간 공부했던 전공의 어떤 부분을 꽤 재미있어했고 그를 통해 지식과 사고를 구축해나가는 데에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꽤나 궁색한 변명이군...' 하는 생각을 내심 하고 있을테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언니네'라는 페미니스트 사이트를 만드느라 인터넷과 컴퓨터의 수렁(?)에 거머잡혀보기도 했다가, 그 사이트 때문에 팔자에 없을 줄 알았던 한 회사 대표 노릇도 해보았다. 새로운 일에 덩벼들어 추진했던 모든 일이 다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 경제적인 전망을 세워나가는 일 등에 관한 시행착오도 많았다. 사실 회사로서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얻은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이버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뿌듯함과, 그를 통해 더 확장할 수 있었던 인적 네트워크, 때로는 의지와 상상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친구들만으로도 덩벼볼만한 일이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웹'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만난 것 등이다. 특히, 웹을 통한 작업 속에서 아직 내가 덩벼볼 수 있는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내 전망으로 기획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여전히 발전해나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새로운 선택을 상상해보았거나, 혹은 내 앞에 그런 것이 던져졌을 때, 이 선택이 나에게 있어 기회일까 아닐까를 가늠해보는 데에 시간을 조금만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정을 한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자신에게 있어서의 기회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공리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쓰는 '조금 다른' 선택의 한 기록이라 했을 때, 이것은 정답인가? 그러나, 이런 일에 맞춤형의 정답이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수많은 답들 중의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미완의 답이고 진행형의 답이다. 글 앞머리에 쓴 대화처럼, 십년쯤 뒤 내 주변의 누군가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내게 해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예전의 그 선배와 비슷한 대답을 해주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스스로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며 그 사람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은, 아마도 내가 정해진 길로만 가려하지 않았다는 뜻, 내 전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꾸미면서 살고 있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

조지혜 / 웹기획자

건축공학 전공
94학번 1998년 졸업자
2000년 건축공학과 대학원 졸업
웹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 운영위원
헤어앤드 스타일링

40여장의 이력서 -남들처럼 살아보기-

#1. intro...남들처럼 살아야 한다.

나이라는 무게가 이토록 무거웠던 적이 또 있었을까.

제 나이에 대학가고, 때가 되면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장단을 맞추어야 한다는 압박은 취업을 앞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911 테러 현장 뉴스보도를 보면서 피해자의 아픔이나 그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아! 취업이 더 어렵구나..." 하며 속쓰려 하던 7개월 전, 그때 나의 절대절명의 임무는 졸업 전에 취업을 해 직장인이 되는 것이 전부였다. 취업이라는 현실에서 뛰어물면서 연세대를 나왔다는 것이 내 경력에 프리미엄을 달아주리라는 착각은 무참히 깨졌고, 인문학을 전공한 여자라는 나의 정체성은 한없이 작고 보잘 것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2. 착각의 붕괴: 이력서 뿌리기 혹은 막 던지기.

5월부터 인턴사원모집에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다. 토익점수도 없이,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나의 배경은 무엇이었던지 당혹스럽기 그

지였다. 차츰 알게 되었다. 기업에서 영문과 중문을 제외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구태여 뽑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문계종 경영학만이 유일하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취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한 대기업 11개 계열사중 인문학부 출신 졸업예정자들이 원서를 낼 수 있는 곳은 겨우 한 두 군데에 지나지 않았다. 그 좁은 틀 안에서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유리할까' 따위의 질문은 하지 말기로 하자. 백화점으로 유명한 L모 그룹 취업설명회에 나온 우리학교 선배는 아예 대놓고 인문학 전공의 그것도 여자를 왜 뽑겠냐고 자신의 회사에 원서를 쓰지 말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었다. 200여명의 사원을 뽑은 이 회사에서 여사원은 겨우 손에 꼽히는 정도였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H그룹 정보통신계열에서 근무하는 과장은 사석에서 내게 '취업을 한 절반의 여사원은 연봉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남사원들에 비해 너무나 뛰어난 성적을 자랑하는 여사원들' 이었다며 능력을 남자보다 배로 키우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월 나의 현실은 암담했다. 토익은 800점도 안되고, 학점도 B+수준. 나는 기업이 제시한 조건에도 못미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초조했고 뭐든 해야 했다. 남들처럼 취업을 하려면, 그 사상최악이라는 현실

속에서 뭐든 해야 했다. 여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업이라는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적정수준의 상품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였다.

40 여장의 이력서, 어쩌면 그 이상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자격이 되는 회사라는 판단만 되면 회사 비슷한 모든 곳에 이력서를 냈다. 미친 사람처럼 그 초조함에 몰려 나 자신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무작정 부딪혀보았다. 서울대 연고대 출신만 뽑아도 신규 취업시장은 넘치고 넘친다는 사실과 경력자들, 그리고 중상위권 대학의 경영학과 출신 남자들을 포함하면 나의 경쟁력은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초조함이 나를 궁지로 몰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내가 시장경제 인력시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큰 실수였다.

#3. 면접에서 좌절하기.

사람이란 동물은 금세 적응을 한다. 나 역시 이런저런 노력 끝에 커트리아를 넘는 토익점수를 가지고 그동안의 이력서 작성요령으로 서류전형을 통과,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이라는 과정은 정말이지 끊임없는 자기검증의 시간이었다. 거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무시한 채, 한 보험회사 서비스직을 지원했던 때 면접에서 나는 차가운 인상을 가졌는데 왜 정거불수술을 하지않았다는 질문을 받았다. 모든 면접에서 결혼에 대한 질문, 커피실부름에 대한 생각, 결혼 후 직장생활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받아야만 했다. 같은 남성

지원자들에게 군대이야기를 묻는 것처럼 여성 지원자들에게는 결혼과 성관계에 관련된 질문들을 했다. 화가 나기도 했고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난 그냥 취업을 하기로 한 이상, 그들이 대답의 내용보다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반응하는 내 모습을 관찰하기 원한다고 생각하고 웃으며 즐겁게 (가끔스럽게) 대처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1,2차 면접은 잘 통과해도 임원면접에만 들어가면 낙방했다. 케미니즘 잡지를 만들었던 경력, 자치신문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지난 대학4년의 세월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던 시절이었다. 더 우스운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내가 연대출신 여자라는 것이 되려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연대 출신 여사원들은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공부한다는 핑계로 그만둔다나...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그 와중에 한 보험회사 사무직으로 최종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4. 또 한번의 좌절. 그리고 새 길 찾기

창사 40년동안 사무직 대를 여사원을 처음 받는다는 그 회사에서 나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나이든 남자직원들이 새 여자 신입사원들을 보겠다고 구경까지 오는 그 상황. 같은 값에 더 고급인력을 쓸 수 있어 여사원을 처음 뽑았다는 부장의 말에 불안감이 물려왔지만 그래도 나는 취업에 성공했다는 안도감에 행복했었다. 그러나 결국 자외반 타의반으로 그 회사는 다닐 수 없게 되었다. 겸을 잃으며 우리를 재평가했던 사장의 결정때문이기도 했고, 절대다수의 남사원들의 호기심때

문이기도 했다. 남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하나의 공포였다.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낯선 공간에서 나는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했었고 결국 그 공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2월이 되자 채용시장은 얼어붙었다. 그 겨울 여자동기들과 엠티를 하면서 낙담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며 밤을 지냈다. 다시 일하러 돌아간다면 경영학을 전공하겠다는 친구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보다 못한 학점과 영어성적으로 이미 취업이 된 남자 선배들에 대해 “그 남자선배는 되는데 왜 더 나은 점수에 조건인 우리는 안 되는가” 하는 말들을 하며 한숨 쉬었다. 우리에게 대안은 혹 결혼이 아닐까 하는 포기의 말들도 쉽게 내뱉어졌다. 세상의 벽은 높았고 우리는 너무나 우울했다. 그나마 우리를 버티게 한 것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여자동기들이었다. 어딘가 우리가 찾는 돌파구가 있을 것이라는 서로의 격려가 포기라는 단어를 잊게 만들었다.

새해를 앞두고 한 외국계 제약회사의 비서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로 하비와 생활비를 벌며 학교를 다녔던 나는 수입이 없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기 때문이었다. 80만원을 받고 시작한 그 한 달 동안의 직장생활에서 나는 숨통일 시간을 찾았다. 그 제서야 나란 사람의 경력과 경쟁력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마치 뛰에 쫓기는 사람처럼 여기저기를 헤매일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생각에 천천히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비서보조업무를 하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서를 넣은 회사로 지

금 나는 홍보실에서 Internal communication을 담당하고 있다. 잡지와 신문을 했던 나의 경력이 인정된 유일한 회사이자 처음으로 자기 소개서를 나만의 방식으로 작성해 통과한 회사였다. 바로 그 곳이 지금의 내가 다니는 직장이다.

#5. 직장인이 된 후..

고통스러웠다. 좌절도 했다. 짜증도 났고 포기도 했었다. 그러나 70만명 중 겨우 7만명만이 정규직 사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면 그 경쟁을 간신히 지나왔다. 여전히 많은 졸업자, 예비졸업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핸디캡들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다는 것을 잊지 못한다. 경기가 풀려도 비정규직만 늘어가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지금의 노동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비보일 수 밖에 없다.

취업전쟁 속에서 난, 마치 압한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해보듯이 아주 절박하게 취업사이트부터 온갖 상담까지 안 해 본 것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 그런 과정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지 도움을 주고 싶다. 취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와 자신감이라는 이야기가 참 짜증나 낯지만 나 역시 미안하지만 똑 같은 말을 전하고자 한다. 단지 같은 경험을 해본 선배가 존재했다면 보다 쉽게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에 나는 후배와 동기들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

지고 그리고 나면 과감히 선택포고를 하고 취업전선이란 뒤편 뛰어돌자고 말이다. 남자들은 상사가 시키기도 전에 알아서 머리에 네타이를 두르고 춤을 춘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실수이다. 커피를 누가 타느냐 같은 문제를 말하기 전에 객관적인 평가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케미니즘 잡지를 만들었던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절박하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의 사회에서 적응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선적응 후노력’이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출산휴가를 보장하자 기업들은 더 여사원 채용을 기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성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과 함께 여기저기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벽은 높다.

여자가 취업전선에서 살아 남아 또 직장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남자들보다 많은 장애물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취업전선에서 지방대 출신의 졸업생이 명문대 출신과 경쟁하기 위해 해야 하는 노력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그 성격은 매우 다르나 세상에 “조건이 같으면”이라는 식의 가정은 벌써 경쟁 속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논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말 그대로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던가. 이왕 들어 온 발이라면 제대로 들어놓자.

#6.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 내 여성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 6위인 우리회사도 남자사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나는 유사성에 호감을 보내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것은 무의식수준에 깔려있는 인간의 자연스런 본능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스템에 비판을 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취업전선에 뛰어든 나와 내 후배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당장 내 자리에 언제든지 들어오겠다는 지원자가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혹한 기대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다 많은 여사원들을 뽑으려 하는 회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려 한다. 또한 역시 여자들이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술마시는 것도 일의 연장이면 처음엔 그들과 함께하고, 같이 짐을 날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문화를 변화시킬 힘이 생길 테니까.

육아와 가사라는 이중고, 삼중고 속에서도 남자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아 온 우리의 선배들이 있기에 지금의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 다음 후배들이 더 낮은 문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희망한다. 결국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 믿기에..

전 양 속

인문학부 심리학 국어국문학 전공
97학번 2002년 졸업자
유한컴퓨터 커뮤니케이션실 3월 1일 입사

멀티 직업 전선에서 이 여자가 살아남는 법

0. 들어가며...

'내가 가장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이 한가지로 모아진다면 세상에나~ 얼마나 행복할까? 이 세 가지야말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정하고 배치시켜야 했던 모든 것이었다. 연세대에 또 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할까 싶기도 하지만, 이 지면을 통해서 '여성주의 판따라'에서 '사회부적응자'에서 '뛰는 회사원'으로의 길을 걷고 있는 내가 저 세 가지를 어떻게 조절하고 배치해 왔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1. 여성주의 '이름쟁이'가 되다.

대학에 입학하고 여성 운동 관에서 생활하게 된 나는 여성주의 관의 새로운 문화 중에 하나인 '이름짓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누구보다도 신이 나서 열정적으로 친구들과 후배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토론회의 로고부터 총여 선거의 슬로건까지 뭔가에 새로운 이름들을 붙이는 작업들에 유난히 애착을 가졌다. 우리의 소망이나 입장을 담아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일종의 주문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다가 우연히 학교에 붙은 어느 작은

회사의 모집 공고를 보고는 그 길로 프리랜서 네이미스트로 등록했다. 처음에는 단지 지긋지긋한 입시 전선에 빌붙어 과외를 하며 용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뻐서, 내가 놀이하듯이 숨쉬듯이 하고 있던 '네이밍'이라는 작업이 다른 곳에서는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은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일이 되었다. 나에게 이름 짓기란 결국 놀이이자 정치이자 직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한때 나는 내가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못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시시각각 선택한 과거가 나의 내일의 갈 길들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한동안 보수를 조금 덜 받더라도 원하는 분야의 월급대신 경력을 주는 곳에 뛰어들었다면, 그 경력은 다음 행보를 결정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2. 회사, 무작정 들어가면 곧 나오게 된다.

마치 중학교 다음 고등학교에 가듯이 아주 당연하게 토익과 토스를 준비해서 마치 대학 원예라도 가듯 회사로 골인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정말 원하는 것이 이 길이었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별다른 계획 없이 하루 하루에 충실하며 대학 4년

을 지내다가, 동기들이 경쟁적으로 대기업에 차례차례 입사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뒤쳐졌다는 생각에 등 떠밀려서 허겁지겁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적응을 잘 한다면 다행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나 자신의 비전 따윈 안중에도 없이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려고 안달이 난 육중한 기업 안에서 한낱 부속품으로 대우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게 해주는 것이 월급과 보너스 이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가 올 수도 있다. 나 역시 입사를 결심하기까지, 완전히 고갈될지도 모를 곳에 나를 방치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나의 삶의 맥락에서 이 직업이 갖는 의미들, 내가 이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들을 스스로 규정하고 나서는 그 두려움과 맞설 수 있었다. 대안이 없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인가 아니라, 미래의 퍼포먼스 겸 기획자로서 조직을 꾸리고 운영하는 법, 사람들 안에서 동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법, 돈과 비즈니스에 대한 감, 그리고 위계 질서 안에서 자학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 등을 익히고 배우기 위해 이 곳에서 몇 년을 무지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러니 나는 이곳에서 소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중인 것이다.

3. 자기 브랜드 만들기

회사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개개인에 대한 정보의 양은 더욱 줄게 마련이다. 사

람들은 단지 기억에 남는 몇몇 사건들, 이미지, 우연히 부각되게 된 장점들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와 관계 맺곤 한다. 그러니 실재 나의 성격이거나 나의 일부본이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구경되지 않은 것, 사람들 머리에 도달하지 않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성주의 관의 판따라 경력을 가진 나에게 회사가 가지는 이미지는 '매우 기발하고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회사에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러나 물에 젖어진 생활속에서의 성실함에서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인물' 정도였다. 나는 스스로의 경력을 숨기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를 변형시키는 대신 스스로 감점이라고 생각하는 분야를 정하고 키우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속한 팀에서 나의 역할과 필요성들, 나의 전문영역들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어쩌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조직 안에서 스스로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4. 멀티 직업을 연계하고 통합하기.

나의 퍼포먼스 영역은 크게 '춤'과 '노래'다. 훈련을 통해 비교적 자유로워진 몸은 노래를 부를 때 목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 부르고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퍼포먼스를 구상할 때 직접 선곡과 편곡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나의 원래



아이디어에 더욱 근접한 작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적이지 않다. 나는 나의 퍼포먼서로서의 정체성을 '몸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여성주의 퍼포먼서'라고 잡아보았다.

하지만 직업의 경우 통합이나 연계가 쉽지 않았다. 졸업 직후 선배들과 여성주의 커뮤니티 [언니네]를 만들어 2년 간 운영하고 난 다음 한 동안 여성주의와 심리학과 퍼포먼서와 네이미스트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많이 괴로웠다. 하지만 결론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며 에너지와 경력을 분산시키는 일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대신 긴 삶의 여정에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잘 배치하고 최종적으로 합쳐질 수 있게 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선 회사에서 조직 운영과 경제적인 현실 감각들을 익히고, 서론이 넘어서라도 여성주의 심리 분야로 유학을 떠날 수도 있고, 나이 마흔에 나의 퍼포먼스 팀과 각자의 경력과 노하우

를 가지고 모여서 '여성주의 세라피 센터'를 차릴 수도 있는 것이다.

5. 어쨌든 살아남는다.

어쨌든 나는 살아남아 살고 싶은 삶을 영위할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나이별 성취 곡선"과 축을 달리 한다면 불안해하거나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바로 옆에는 계속 지켜봐주며 '넌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고 격려해줄 집단이 있고, 나 역시 내가 그린 인생의 큰 그림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다 or 한천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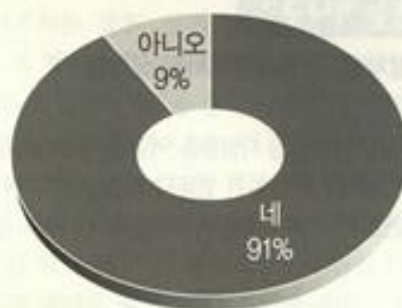
인문학부 심리학 사회학전공
96학번 2000년 졸업자
여성주의퍼포먼서 / 네이미스트
언니네 운영진



설문조사

2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다들 결혼하면 직장을 관둘 거라고 생각해요~
실력말고 외모도 보잖아요~
아예 요즘엔 여자를 적게 뽑는다면서요?

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저는 고시를 볼 거예요. 시험은 평등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젠 많이 변하지 않았나요?

■ 조사대상 : 연세의 여학우 146명

■ 조사기간 : 4/8(월) ~ 4/12(일)

여성과 일!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에서 발간한
『일을 찾아가는 job소리』에서 발췌, 편집했습니다

■ 왜 여자만 안 뽑는거냐?

- 모집 채용상의 성차별: 면접과정에서의 성차별

“애인있나?”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자가 많은 곳이고 밤늦게까지 일도 많은데 여자로서 일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여자가 남자보다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 회사일이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면접은 채용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응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곤혹스러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결혼은 언제할거냐, 아근하는데 애인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할거냐, 결혼하면 직장을 계속 다닐거냐는 등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응시자들을 당황스럽게 한다. 면접관의 의도는 무엇일까?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애인 있다고 하면 금방 결혼하겠다고 얘기할 것 같고, 없다고 하면 뭔가 문제 있는 여자로 볼 것 같고, 독신주의자라고 하면 더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물론 마음 넓게 해석한다면 결혼과 상관없이 계속 일할 여성을 채용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연장이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99년 7월 1일부



터 시행)에서도 ‘응모자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선발이 아닌 그 개인이 속한 성별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채용 기회·조건·방법 등을 달리하는 경우’, ‘사용자,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집단, 모집의뢰인 또는 고객의 선호를 이유로 성별에 따라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특정성의 이직률이 다른 성의 이직률보다 높다는 등의 상대적 근무 특성을 이유로 특정성에 대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행위로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모집이란 신문, 방송, 통신 등을 통한 광고모집과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신청, 위탁모집, 연고채용 등 명칭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근로를 권유하는 것을 말하고, 채용이란 면접이나 시험 등을 거쳐 특정인을 선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모집 채용상의 성차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채용공고를 뒤적거리거나 면접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 해당 기업에 곧바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사실 기업에 직접 항의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관련법에 위배되지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로 전화나 통신을 통해 항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단체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 시정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여성의 좁은 취업문, 함께 넓히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자!

■ 정당한 나의 권리를 찾고 싶다!

- 성별에 따른 차별임금: 임금은 적고 승진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기본급에서 남녀차이가 있다. 남자는 4급, 3급 이런 식인데 여성은 4급 갑과 을로 세분화되어 있다. 물론 같은 4급이라도 남자보다 월급이 작고, 갑, 을로 나뉘어져 있다보니 3급으로 가는데 남성들보다 3년은 더 걸린다. 월급 받을 때마다 열 받고 일할 맛도 안난다.

첫 월급 타는 날의 기대와 설렘, 그러나 이도 잠시, 월급받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일할 의욕은 자꾸 떨어진다. 남자 직원과 동일 학력에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승진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남녀임금차별유형은 성에 따라 기본급, 호봉산정, 승급, 승진 등을 구분하여 남자보다 낮게 하는 경우, 같은 직급 내에서도 여성에게 낮은 호봉을 주는 경우, 임금인상을 하면서 남성보다 낮게 하는 경우, 수당이나 자금 용자에 있어서 남성과 차별대우하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오래 근무할수록 남녀간 임금차이가 많이 나게되는데, 이는 남직원에 비해 여직원의 승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승진상의 성차별은 직장 내에서 여성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나와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지만 임금차별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근로조건과 대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의 일터 곳곳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도사리고 있다. 교육, 배치상의 차별, 이와 한 고리로 연결되는 승진에서의 성차별, 남자직원은 너무나 당연히 학력을 인정하지만 여직원은 대졸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 남자직원은 기획관리분야에 배치하나 여직원은 단순보조적인 업무와 부서로 배치하는 차별, 해외연수나 해외출장에 여성을 배제하는 차별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차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나 여직원회가 있다면 이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사규, 단체협약 등 사내규정을 고쳐나갈 수도 있고 회사 내에 해결방법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거나 여성부에 차별신고를 하면 시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잊지 말 것!

■ 결혼, 임신이면 나가라?

여직원 가운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1년 넘게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회사에서는 여직원이 결혼하면 그만두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결혼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다. 결혼 6개

월이 지난 다음 지점장이 알게 되었고 사표쓰라는 강요를 계속 받고 있다. 입사할 때 결혼하면 그만두겠다는 서명도 하였으면서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나를 악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처음 입사할 때는 출산휴가는 물론이고 출산 후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출산을 앞둔 요즘은 '분위기가 안좋으니 힘들겠다'라며 우리 회사는 출산휴가가 없다. 출산휴가가 없는데 애 낳고 다음날 나오겠느냐, 사표를 쓰라며 매일 부장에게 불려가 시달림을 받고 있다. 출산휴가를 내고 결재도 되지 않고 아기 낳을 날짜는 다가오는데 초조하고 불안하다.

결혼임신 퇴직은 오랜 관행이었지만 경제위기 이후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들은 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여성의 모성보호 관련한 권리들이 대폭 축소되고,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해고의 위협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는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위의 사례처럼 여성의 결혼을 이유로, 또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거나 암묵적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는 분위기라면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것들은 모두 성차별에 해당되는 행위로 법적인 제재를 받는 부분이니까, 회사 관례상 결혼한 여직원들은 모두 퇴직했다거나 결혼하면 자동 퇴직하도록 하는 각서, 구두약속, 근로계약 등을 내세워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협박해도 이러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그러니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결코 흔들리지 말자. 결혼임신 또는 출산하면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서 등은 모두 무효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강요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회사에게 성차별에 해당되는 행위임을 말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해도 회사가 계속 사표를 쓸 것을 종용한다면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하든가 만약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성의통

회사에 갓 들어간 신입여직원이다. 남자대리 때문에 회사에 가기가 두려워진다. 노래방에



갔을 때 그 대리가 엉덩이와 다리를 만
지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연락해오고 있
다. 그 일이 있는 다음부터 가슴이 답답
해서 숨쉬기도 힘들고 진정시키기 위해
약도 먹고 있다.

집 근처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하
게 되었다. 일하게 된 지 얼마 안되어
동사무소의 45세 가량의 주사와 30세의
여직원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
술자리에서 주사는 입에 담지 못할 욕담때

설을 늘어놓으며 여직원에게 먼저 가라고 자꾸 재촉을 했다. 김새
를 느낀 여직원이 안 간다고 해서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면
서 주사는 자기는 힘이 있어서 너희가 원하면 공공근로가 만기가
되어도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이 자자고 말하는 것
이었다. 그러면서 주사는 나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 설마하

며 따라갔던 나는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쳐 나왔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코 나에게서는 일어나지 않
을거야'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직장 내 성희롱문제이다. 민우회의 조사에 따
르면 많은 여성들이 입사초기 1년 안에 성희롱을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나이도 어린데다 사회 초년생인 만만하게 보고 쉽게 불쾌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직장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제기한 여성운동의 힘으
로 드디어 99년에 직장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 금지와 예방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
니 불쾌한 일을 경험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자.

만약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면? 성희롱은 그 행위를 당한 나의 관점이 중요하다.
내가 그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모욕감을 느끼고 불쾌하였다면 그것이 성희

롱이다. 우선 상대방에게 그것이 바로 성희롱임을 얘기하고 중지해줄 것을 요구하
자. 그런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싫다,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고 동료들과 상의를 해서 함께
문제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되고, 성
희롱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인사발령이나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
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이 오면 자신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
다.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가해자가 시인하도록 유도를 해 녹음을 해 놓
거나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확보, 또는 여성단체 상담일지 등 가능한 증거를 확
보하면 된다.



설문조사

3

여성이 직장 내에서
남성보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능력으로 평가받지 못할 것 같아요~
잡일만 할 것 같아요~
기득권층의 성권력구조, 과연 변할까요?
직장문화가 남성위주일 것 같아요~
승진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부하가 과연 내 말을 잘 들을까요?

■ 조사대상 : 연세의 여학우 146명

■ 조사기간 : 4/8(월) ~ 4/12(일)